

G.MAP 내달 30일까지 문준용 작가 실감콘텐츠전

움직임 따라 즐기는 예술... '별을 쫓는 그림자'

빛을 따라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 만나며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오는 7월30일까지 제4전시실에서 문준용 작가의 'Augmented Shadow'전을 개최한다.

그림자 증강현실·인터랙티브아트 결합 미디어작품
관람객 시점, 위치 따라 교류하는 스토리텔링 세계

이번 전시는 G.MAP의 2023년 첫 실감콘텐츠전으로, 몰입형 전시 공간인 제4전시실 특성에 맞춰 그림자 증강현실과 인터랙티브 아트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준용 작가는 증강현실, Tangible 인터페이스, Generative art, 사운드 시각화 등의 실험 미디어와 컴퓨터이션을 활용해 작업을 해왔다.

뉴욕 현대미술관,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홍콩 마이크로웨이브, 영국 원뿔체로 등 우수 문화기관에서 전시하기도 한 대표작 'Augmented Shadow' 연작은 유럽연합집행위 ST ARTS 상 후보작 지명, 일본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우수상을 받았으며 가오슝, 중국 샌드박스, 부천 등의 국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문 작가가 고안해 낸 'Augmented Shadow'의 기술을 이용한 시리즈 중 하나인 '별을 쫓는 그림자들'을 선보임으로써 몰입형 공간 속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안내한다.

'Augmented Shadow' 시리즈는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여 영상 인터페이스 환경에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어 온 결과로, 특수 제작한 장치인 트래커(Tracker)를 통해 관



문준용작 'Augmented Shadow- 별을 쫓는 그림자들'

람객의 위치를 감지, 관객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 물체의 실제 그림자에 가상 그림자를 매핑하는 실험적 예술을 보여준다.

공간 속 명암과 그림자는 관람객이 들고 있는 트래커 속 빛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관객은 가상공간에 들어간 듯한 실재감을 느낀다. 여기저기서 관객을 부르는 그림자들을 관객이 찾아내고, 그림자에게 다가가면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작품은 빛, 그림자, 입체 착시, 몰입환경 등 모든 인터페이스가 서사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관객은 빛을 통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과 만나고 교감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완전한 몰입

을 경험한다. 또 이 작품은 G.MAP 전시장 공간에 맞춘 모델링 및 텍스처제작을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특별 제작했다. 이에 더해 작품 영상에서는 G.MAP에서만 선보이는 애니메이션과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문 작가의 인터랙티브 아트는 필수적으로 관람객과 영상작품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장치는 조작이나 작동방법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가 개발한 작품 속 장치인 트래커는 어떠한 조작이나 지시가 필요 없다. 그저 관객들이 손에 들고 있기만 하면, 관람객을 빛으로 인식해 그의 작품 세계로 안내한다.

또한 단순히 고정된 한 시점에서 움직이는 기존 인터랙티브 예술과는 달리 이 작품은 관람객의 시점과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교류하는 스토리텔링의 세계를 선보인다.

이경호 G.MAP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그의 연작을 통해 특정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닌 모두를 위한 증강된 예술세계의 미래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며 "모든 연령이 어려움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중에는 전시연계 행사로 문준용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향 하반기 정기공연 예매 개시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하반기 정기연주회(7-12월) 티켓판매를 시작한다. 최근 연이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문화수도 광주에 클래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시향은 앞으로 여섯 달간 총 6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향의 하반기 시즌은 7월20일 374회 정기연주회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고 바이올리니스트 이해정과 윌리엄스 종달새의 비상, 라벨 에미 거위 모음곡, 첼리스트 심준호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를 연주한다.

8월31일에는 375회 정기연주회 'Queen'을 주제로 헨델 시바 여왕의 도차,

베토벤 교향곡 4번, 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상자 첼리스트 최하영과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를 선보인다.

376회 정기연주회 'Fantasie'는 9월23일 관객과 만난다. 베를리오즈 환상 교향곡과 피아니스트 강충모, 이해전 협연으로 폴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무대에 올린다.

10월26일에는 377회 정기연주회 'Babi Yar'가, 37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소녀'는 11월11일 개최된다.

하반기 시즌 마지막 무대는 12월8일 379회 정기연주회 '2023 송년음악회'로 장식한다.

티켓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최명진 기자

기억의 시간, 또다른 미래를 꿈꾸다

내일 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국악연주단 무용단 정기공연 'Memoria-그리고 또 다른 미래' 무대를 올린다.

이날 무대는 춘앵전수향합설로 시작한다. 독무로 추는 춘앵전과 무산향을 비교 분석해 만든 작품으로, 우아한 움직임 속 남녀의 만남과 관계가 발전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다음 무대는 서울굿을 춤으로 만들어 무대화시킨 작품 '대신무'다. 화려한 무복을 입은 채 양손에는 여러 무구를 번갈아들며 추는 춤이다. 무용수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무대가 준비됐다.

이외 경기도당궁 장단에 맞춰 뿔과



Memoria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리도 절묘한 소리를 내며 잡귀를 몰아내고 나라의 평안을 노래하는 '진쇠춤' 무대와 새로운 가락으로 구성된 철가야금산조에 맞춰 만든 산조춤 '휘울' 무대가 관객들과 만난다.

마지막 무대로 담백한 가락이 특징인 박은하류의 '설장구춤'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수요자 맞춤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만나볼까

ACC, 9월까지 프로그램 5종 운영

공모를 통해 엄선한 수요자 맞춤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9월까지 4대 1 공모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5종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ACC는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주체를 발굴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문화예술단체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했다.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은 ▲인터랙티브 미니어처 갤러리 만들기 ▲함께하는 문화 아시아 전통놀이 ▲헤테로토피아의 소리산책가 온전한 휴식을 담다'는 육아를 하는 부모가 대상이다.

▲미디어댄스 101 퍼포머/프로그램 ▲ACC 공간탐험대 등이다.

'인터랙티브 미니어처 갤러리 만들기'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과 코딩 도구 꾸러미를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연령 참여가 가능하다.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함께하는 문화 아시아 전통놀이'는 아시아 각국 전통놀이를 따라 해봄으로써 춤,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예술표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헤테로토피아의 소리산책가 온전한 휴식을 담다'는 육아를 하는 부모가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강의 시작 2주전부터 ACC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